

## 2025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분야 【창작준비】지원 심의평

2025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창작준비>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창작준비 지원>에 총 475명이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3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정자에 대한 심의평 및 심의 전체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의 구체적인 리서치, 유효한 방식, 새로운 시도 등이 우수하였다. 또한 새로운 작업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그것을 작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들을 자신의 기존의 작업의 맥락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 자신의 작업 철학 및 개념을 바탕으로 준비과정에 대한 설정이 구체적어서 창작준비라는 공모의 취지에 적합하였다.

○ 2025년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창작준비지원 공모에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였다. 지원자의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주제적으로는 AI, VR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 생태 등 다양했으며, 작품 제작의 전단계로서 재료와 물성에 대한 실험이나 매체 연구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연구자들이 창작자로 참여하는 기획이 있었던 것이 새로웠다. 이처럼 다채로운 대상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우선 다른 모든 요건들 보다 이번 공모에 제출된 기획서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지원자들이 서술한 주제나연구 방식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또 다른 시각, 그리고 실행방식에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지원서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도록 노력하였다. 반대로 단순히 작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의 목적, 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신청과 같이 기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지원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선정된 창작자들이 올 한해 동안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다다라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지원자들의 다양한 장르적 시도와 개성 있는 접근 방식이 돋보였다. 각기 다른 미학적 탐구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모색하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실험성과 개념적 깊이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준비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독창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하였다. 본 지원이 앞으로의 예술적 흐름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모는 지원자가 많은 만큼 설득력 있고 참신한 지원서가 다수 눈에 띄었다. 심의 기준은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제시하는 창작 준비의 접근성과 실행 가능성을 중점으로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과 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예술철학을 만들어가는 창작준비 지원이다 보니, 제안이 다소 관념적이거나 공모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전시 개최 등의 경우도 더러 있어 이러한 지원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창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준 모든 작가들을 응원하며, 물리적 한계로 더 많은 작가들을 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응모하신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보듬고 과정을 다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지원자의 경력, 계획서의 주제, 매체, 리서치 접근방식과 결과물이 매우 다양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보다 '신작구상 준비단계의 기획, 리서치 등 창작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기에, 신작을 구상하는 단계의 기획과 리서치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랜 기간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작가, 최근 주요 전시에 참여하며 주목받은 작가, 전시 경력은 약소하지만 작품과 리서치 과정이 흥미로운 작가까지 지원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리서치 과정과 주제 역시 도시계획, 환경과 인류세, 최신 과학기술과의 접점부터 개인사 또는 기존 작업을 발전해가는 기획을 보여주는 등 다채로웠다. 심의를 진행하며 가장 중점을 둔 지점은 어떤 주제와 관심사든 신작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 리서치가 지니는 의미와 맥락이었다. 이러한 고민이나 리서치 과정을 배제한 채 단순히 신작을 제작하고 해당 제작비와 재료비 지출로 예산을 수립한 지원서 또는 단순히 예정된 전시 출품작을 제작하는 지원서가 다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업 취지에 따라 높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우열 또는 참신함 등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 선정된 작가들은 무엇보다 신작 제작 과정 이전의 리서치와 새로운 시도와 주제를 상세히 밝히고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부여받았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사업이 신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고 연구과정을 면밀히 진행하는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5. 2. 27.

심의위원	신승오	페리지갤러리 디렉터
심의위원	신은영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팀장
심의위원	양아치	시각예술 작가
심의위원	이경민	미팅룸 디렉터